

# 挑戰的인 試錐作業은 進行되고 있다

## — 韓國石油開發센타 提供 —

### 〈石油事業의 光熱時代〉

石油은 奇蹟의 商品이다. 25年 前인 1948년 不毛의 沙漠이었던 “쿠웨이트”에서 原油가 분출 되어 가난했던 土侯國이 1人當 國民所得이 가장 높은 나라로 변모했다. 美國의 富의 상징인 「스텐더드 오일」은 달톤 5백이 「달라」로 개업한 石油중매업을 토대로 무진장의 油田帶를 찾아 냈던 「J. D 록펠러」青年이 이룩한 奇蹟이다. 우리 나라 大陸棚 海底에서 石油 시추 作業을 實施하고 있는 「로열 · 더치 · 셸」은 「네덜란드」의 農夫였던 「안스 세르케르」가 印尼 스마트라에의 어느 이름 없는 酋長으로부터 헐값으로 사들인 油田을 開發, 世界의 企業으로 성장하게 된 會社다.

石油은 戰爭의 商品이다. 第2차 世界大戰은 美國과 英國의 石油 獨占에 대한 日本 獨逸 이탈리아의 반격으로 발발 했다는 말이 있다. 식유는 한 나라의 戰略資源으로 戰爭의 승패를 좌우해왔다. 大戰이 끝난 후 英國의 軍事 전문가 손卿은 『우리는 石油 때문에 승리 했다』고 단정하기까지 했다.

石油야말로 萬能의 魔術師다. 現在까지 開發된 約 40萬種의 有機化學 제품중 약 30만종이 石油를 原料로 쓰고 있다. 合成 섬유, 合成樹脂, 化學藥品, 열료, 肥料 農藥 심지어 洗劑에 이르기까지 石油原料가 使用되지 않은 제품은 거의 없다.

石油化學 分野의 전문가들은 『金과 銀과 다이아몬드를 合成해 내지 못 할 뿐 石油은 뭐든지 生産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술된 精油의 성공으로 自動車 혁명이 일어난 무렵엔 石油를 『20世紀의 신테렐라』라고 불려 왔으나 石油化學工業의 開發 불을 타고 『萬能의 魔術師』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石油은 또 世界 에너지의 50%를 供給해주고 있는 주요 에너지이다. 世界의 에너지 消費 구조중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石油값도 해마다 오른다. 엄청나게 늘어난 石油 수요를 바탕으로 이른바 『石油 事業의 光熱時代』가 열려 國際 石油會社들은 世界의 50 大 財閥群에 빠짐없이 끼일 만큼 성장했다. 지난 64년 以來 우리 나라에 上陸한 걸프等 外國 石油會社들도 「톱 · 랭킹」의 寶上을 울리고 있는 巨大企業群으로 군림하고 있다.

石油文明의 時代다. 石油文明의 발달을 계기로 언제부터인가 石油를 「블랙 골드」라고 부르기 始作했다. 블랙 골드를 캐내기 위한 世界 各國의 경쟁은 치열하게 불 붙어 특히 「스텐더드·오

일」을 비롯한 國際 石油 財閥들은 海外 石油資源 쟁탈 경쟁에 앞서고 있다.

世界 各國과 石油會社들은 奇蹟과 戰爭의 商品이자 萬能의 魔術사인 「검은 金」 石油를 캐내기 위해 작년 한 해동안에도 世界 곳곳에 무려 1771個의 試錐 구멍을 뚫었다. 구멍 하나에 평균 58弗/ft(작년 美國統計海上) 陸地는 約 20弗, (美國이 기때문에 더 싸다)의 비용이 드는 作業이다.

유럽大陸과 英國 사이의 北海와 알래스카의 北端에서 油田이 發見됐고 호주 近海의 一部地域에서 原油가 쏟아져 나왔다. 日本 九州 앞 바다의 大陸棚에서도 가스가 분출 됐다.

世界의 石油 開發 불은 우리 나라에도 번졌다. 69年 4月以來 우리 나라 政府와 石油 探查계약을 맺고 그동안 1次의 概略 탐사와 2次의 精密探查를 끝낸 4個 石油會社中 「걸프 · 오일」과 「로열 · 더치 셸」은 작년 11월 11일 부터 石油探查의 마지막 과정인 試錐作業에 착수했다. 우리 나라의 大陸棚에서도 과연 石油가 쏟아져 나올 것인가. 올해 經濟의 最大 「하일라이트」가 될 이 石油採取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確實한 전망을 내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希望은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石油探查가 착수된 것이다.

「유엔」의 「에카페」는 3年前 韓國의 西南 大陸棚이 『第2의 페르시아灣』이 될 가능성이 걸다는 보고서를 냈다. 65年 우리 나라에 上陸한 「걸프 · 오일」은 제 나름대로 우리 나라 大陸棚의 石油 賦存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可能性이 있다는 結論을 내렸다.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臺灣盆地와 連結된 韓國의 西南 海底는 石油 賦存地層인 이른바 『第3紀層』으로 형성 되어 있음이 여러 갈래의 조사 結果로 밝혀진 것이다.

우리 나라 最初로 釜山 東北쪽 120 km 지점에서 試錐作業에 착수한 「로열 더치 셸」측은 『그 동안에 精密 조사 結果 油微의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石油가 나올지는 試錐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하고 있다.

西南 海底의 石油 試錐를 맡고 있는 「걸프 오일」 측은 『韓國의 大陸棚은 石油 賦存의 理想構造를 갖추고 있는 것만은 確實하다』면서 石油 採取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리고 있다.

아름은 지금까지의 石油試錐 速度로 보아 빠르면 2月末 늦으면 올해 안으로 우리 나라 海底의 石油 賦存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海底의 黃金을 캐는 「돌고래」〉

지난해 11월 「코리아 셸」本社에 英國 「네델란드」日本 ; 韓國 등 多國籍人으로 구성된 전 직원이 모여 들었다. 73年 1月13일 부터 作業에 들어가는 海底石油 試錐孔의 이름을 짓기 위한 職員投票가 實施됐다. 「돌고래」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돌고래는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幸運의 바다動物이라고 한다. 石油 분출의 幸運에 對한 한결같은 기대가 전 직원의 投票 結果로 나타난 것이다.

釜山 東北쪽 1백20 km 지점의 제6 海底 鑛區에서 「로열 더치 셸」이 實施하고 있는 우리 나라 最初의 石油 試錐 作業이 한창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돌고래』라고 명명된 石油 試錐 구멍이 2천여 m 나 뚫려 工程의 約 60%가 진척되었다.

試錐船 「오션 프로스펙터」號가 흡사 巨大한 海上基地처럼 망망한 바다속에 닻을 내린채 바다속 깊숙이 「파이프」를 박고 밤낮 없이 試錐 구멍을 뚫고 있다. 試錐船의 크기는 길이 1백4m 너비 80 m, 높이 89 m로 크고 작은 16個의 기둥을 바다 밑에 내리고 있어 마치 製鐵工場의 鐵造 건물 같다. 좀처럼 앞 뒤는 분간하기도 어렵다. 배가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13.6톤짜리 닻 8個를 海底의 땅까지 드리우고 있는 大型선박이다. 波高 18m의 파도가 일어도 風速 55m의 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버티는 특수 건조선이다. 試錐 구멍을 계속 뚫고 내려가기 위해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船舶을 그대로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일까. 「오션 프로스펙터」號의 「콘트롤 시스템」은 빈

틈 없이 갖춰져 있다.

「레이더」와 受信 기록장치, 수백개의 각종 「게이지」가 試錐 구멍의 위치와 氣象 변화를 빠짐없이 체크하고 있다. 試錐器 밑에 설치되어 있는 「TV 시스템」은 바다 밑의 作業 現場을 낱낱이 비춰 주고 있다. 하루에 1천만원, 구멍 한개를 뚫는데 모두 16억원이 드는 作業이다. 3~5%의 石油 분출 가능성에 매달려 바다 밑에 돈을 쏟아 넣고 있는 모험이다. 그러나 石油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 모험이 奇蹟을 낳는 作業이다.

石油 분출의 可能性에 期待를 걸고 8個國에서 모여든 60名の 船員과 技師들이 試錐船 구석구석에서 저마다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21人乘의 大型 「헬리콥터」가 24時間 作業에 지친 船員과 기술자들을 교대 시키기 위해 試錐船갑판 위에 마련된 「헬리포트」에 내려 앉는가 하면 4백톤 규모의 物資 供給船 3척이 釜山 基地에서 교대로 운항 되고 있다.

試錐 구멍에서 케닌 돌과 흡은 화환의 「헤이그」에 있는 「셸」本社에 空輸되어 石油의 生成源인 古代植物과 動物의 化石을 분석하며 또 同時에 地層에 여러 科學的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檢層(Well logging)을 實施한다. 海底 大陸棚을 파내려 가면서 石油 분출의 흔적과 확률을 체크하는 作業이다.

아직 石油가 뽑어 나오지는 아무도 모른다. 海底石油 探査의 마지막 과정인 試錐作業이 끝나야만 우리나라 大陸棚에서 石油가 뽑어 나오지 관가름 될 것이다.

# 問題點에 對한 어프로치

— 編輯 部 —

〈韓國史 바뀔 轉機에〉

우리 나라 大陸棚에서 石油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 韓國의 歷史는 바뀔 것이다.

2억2천만 「달러」에 달하는 原油를 들여올 필요가 없어져 貿易收支가 크게 개선된다. 國際原油값 引上에 따라 만성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에너지 價格引上 파동도 잠잠해 질 것이다.

〈亞洲 勢力 균형 영향〉

原油 生産量이 國內 수요를 채우고 남아돌 경우 우리 나라가 石油 輸出國으로 發展하여 世界의 經濟大國圈에 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地政學的 위치로 보아 아시아의 勢力 均衡에 영향을 주게 될 상 싶다.

問題는 나오느냐 안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얼마만큼의 石油가 분출 되느냐도 問題다. 만약 石油가 나오는 경우 우리 나라 는 外國의 探査 會社와 체결한 契約에 따라 生産量의 50%以上을 받게 된다.

〈生産 보너스 들쭉〉

契約 內容은 外國의 石油 探査 會社가 30年間의 租鑛權을 갖고 해마다 賣出額의 12.5%를 「로열티」로 우리 나라 政府에 지불 하고 利益金의 50%를 法人稅로 하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生産量의 50%以上을 받게 된다는 計算이 나온다. 또 石油 계약내용에는 보너스 支給 規定이 包含되어 있다. 契約內容이 會社마다 다르지만 石油가 生産 될때 外國會社가 1백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의 生産 「보너스」를 내게 된다. 이 生産 「보너스」는 原油 生産量이 日産 10만배럴을 넘어설 경우 5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까지 늘어 난다.

〈生産지속의 問題〉

또 世界의 主要 產油國의 例로 미루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會社 運營權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石油의 探査 · 供給 · 運送계약과 其他 會社의 운영 실태 등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수수께끼의 「메일」에 쌓여있게 마련이다.